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호덕저수지서 자연 재난 비상대처훈련 실시

송덕만 기자 | 승인 2025.05.16 15:40

유관기관 협업 통해 신속 대응체계 점검...실제 상황 가정 실전형 훈련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고흥지사(지사장 박승수)는 15일 고흥군 과역면 호덕리에 위치한 호덕저수지에서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과 자연재난에 대비해 저수지 붕괴 등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다.

특히 태풍, 지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 제방 붕괴 상황을 가정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전 중심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훈련에는 고흥군청을 비롯해 과역면사무소, 고흥소방서, 고흥경찰서, 긴급동원업체, 지역 주민 등 약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궂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난 상황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훈련은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가동 ▲저수지 제방 이상 감지 및 상황전파 ▲관계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점검 ▲복구장비 및 수방자재 긴급 투입 ▲주민 대피 유도 및 안전 확보 등 전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별 역할과 협업 절차를 점검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장에 투입된 긴급동원 장비와 인력은 신속한 초기 대응을 시연했으며, 실제 저수지 구조물에서의 복구 및 응급조치 훈련도 함께 병행되어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의 실전 대응 능력을 엿볼 수 있었다.



[사진=농어촌공사 고흥지사]

박승수 고흥지사장은 "바쁜 일정에도 훈련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철저한 비상대처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